

◀기쁜 우리 날들▶ 이 땅의 50대

이름없는 슬픈 40대가 있다면 불감증의 50대가 있습니다.
부도들은 암시장에서 미제 초코렛을 사다 소풍가방을 채워 주었고
신이 난 우리들은 힘차게 발맞추어 노래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넣고 넣어~~ 앞으로 앞으로~~”
학교복도는 날부러진 시체사진 전용이었고, 길바닥은 거지들로 가득 찼고
도시는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 전쟁통에 애기 잃은 엄마들의 가슴이 터져 버려서
시장바닥은 혼이 나간 아주머니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라곤
“주변을 둘러보지 말라! 마음 독하게 먹고 앞만 보고 걸어라!”
언니 오빠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던 4.19도, 처음 배우는 “쿠테타” 라는 단어도
모두 다 생소하기만 한 첫 경험에 불과했습니다.

“생리대” 라는 단어도 없었고 “사랑” 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만 당당 했습니다.
독일 땅으로 이 땅의 젊은 피들이 광부로 떠나가고
새파란 이 나라의 처녀들이 치매환자 똥오줌을 받으러 나갔을 때도 우리들은
송금을 기다리는 동생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우표를 모으면서 들도 보도 못한 신천지가 있다면서
용기 있는 자들이 브라질로 떠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민” 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경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기 그지없는 외국행을 위해 “병아리감별 학원” 이 미어
터지도록 등록을 하고

세상이 뒤바뀌고 정신을 가다듬어 “잘 살아보세~~” 를 외칠 즈음
누나들은 가발공장에서 밤 새우고 달동네가 매질에 밀려 쫓겨날 때도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진 성수대교도, 삼풍아파트도 모두가 다 우리세대
책임이라고 이 땅의 30대에게 꾸지람을 듣고 어색하고 억울하여 주변을 살펴보니
이미 우리는 일터에서 퇴출되고, 가정에서 조차 내 칫솔 하나도 제자리가 없이
남몰래 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살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40대가 이름없음을 한탄할 때,
한 맺힌 70대가 살아 남았음을 자위할 때,
해방도 독립도 어부지리로 얻은 우리 50대,
한국의 50대 바로 이 땅의 50대.

◀이런 경로당▶ 대가리 경로당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에는 '대가리경로당' 이 있습니다.
강히 불경스러워 함부로 경로당 이름으로 부일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당당히 경로당 현판을 달아놓은 동네.
대가리 마을의 어른 공경하는 마음 읽는 것 같아 대가리 주민들에게 머리 숙이게 됩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2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6월 4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 하신다.

Lambert Noben



내가 벌거벗은 채 태어난 것은
네가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네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박해 중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생명 안에 태어난 것은
너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씀따라 행하기▶

예배드릴 때 모자는 벗으면서도
마음을 수그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된다.

◀인품따라 행하기▶

눈여겨 볼 때와
눈감아 줄 때를
아는 아내가 양처(良妻)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8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8(시67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219장	다 갈 이
기 도 Pray		박일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40-42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12제자 연구 변화된 사람 베드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8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차 량	안 내
28	김영길	강은미		본당: 김순자 정희자 현관: 김교섭 장현중
4	박일영	강현정	정덕수	
11	이광희	구미희	김교섭	
18	이규임	권용일	이광희	
25	이재영	권정호	박일영	

◆6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성령강림주일 성찬주일
11	믿음의어머니기도회(13) 피택자교육(16)
25	이삭줍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1. 교우소식

<모친방문 출국> 신경화 집사. 위암 말기인 친정어머니 뱀는 길 ,떠나오는 날은 생전의 마지막 모습 될 것 같아 그 발걸음 어찌 떨어질런지요!
<군 입대> 이지훈(이근평, 임숙경 집사 장남). 지난 29일 출국
*고국의 군대에 자진 입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장 "이 병장" 으로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온 안부소식> 김종건 장로, 지찬영 권사. 평안함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애찬> 고성일, 김봉희 집사. 지난 토요일 장녀(고경아)의 결혼축하에 감사하여 커피와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2. 6월 구역예배 <일시> 9일(금) 저녁 7:30

*구역장 모임: 예배 후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3. 차량순찰. <순찰담당> 항준직분자

*금주부터 차량 파손, 소지품 분실방지등을 위해 예배시간동안 차량순찰을 합니다.

4. 성전건축위원: <위원장 > 이광희 장로

*위원장과 당회에서 위임된 위원들께서 성전건축과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5. 성전건축

*기도하실 때마다 성전건축을 위해 빼놓지 않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착한 시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근평 집사

어느덧 군대에 입대하였구나.
아버지는 군 입대를 반대하였지만
너의 의지와 비전앞에 동의 하였단다
너를 보내 놓고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너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단다
이 세상에서 명예와 출세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깨달아 간다.
앞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 할거다.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9일(월) 아들 지훈 군이
고국의 군대에 자진 입대하면서
떠난 후에 부모님께 도착되
도록 편지를 띄웠답니다.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의 등직함에
아버지는 뛰는 마음으로 답장
을 썼습니다.
결혼, 군대, 출산... 아들 딸들이
어느 덧 우리가 어른이라고 여
겼던 그 시절의 나이가 되어갑
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이 그리 오
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을 알
겠습니다.
'부디 제대하는 그 날까지 건강
하게만 지내다오'라는 말에 아
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모두